

[제주잠녀]96.<2부>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67)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새로움 위해 바다를 열다

등록 : 2007년 12월 09일 (일) 15:50:33
최종수정 : 2007년 12월 09일 (일) 15:50:33

고미 기자 ✉ popmee@jemin.com



▲곽지해수욕장

바다가 가슴을 드러낸다. 숨겨진 속내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가슴까지 내어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 '메역을 조물지 못하면(미역을 따지 못하면)' 여자로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미역 흔적을 찾는 게 더 어렵다. '바다바라기'만 하기엔 세월의 속도는 너무나 빠르고 그렇다고 바다 혼자 살라고 내어놓을 수도 없는 노릇.

그래서 잠녀들이 바다를 연다. 바다도 살리고, 스스로도 살기 위한 자구책이다.

모래 바다를 닦을까

해수욕장으로 한 유명세하는 곽지리 바다다. 멀리서도 새하얀 모래밭과 어울린 모습이 그림 같다. 그런 풍경과 함께 하면 세상 시름쯤은 잊고 살만 한 터. 하지만 잠수들은 숨비소리보다 더 깊은 한숨소리로 '지금'을 얘기한다.

곽지리 어촌계에서 잠수증을 소지한 사람은 39명이지만 이중 진짜 물질을 하는 사람은 12명이 전부다. 이중 50대가 3명, 80대 1명을 포함해 8명이 60대 이상이다.

수입 역시 신통치 않다. 해수욕장으로 일부를 내어주고 나머지도 대부분 모래 바다여서 물건이 여물지 않는다. 2005년과 2006년 양식장으로 사용하는 가린돌 지역에 6만미의 전복 종패를 뿌렸지만 올해는 지원해 준다는 것을 아예 거절했다. 지키는 것이 더 힘들기 때문이다.

김순자 어촌계장(61)은 "잠수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번'을 써야한다"며 "해수욕장 등으로 오가는 사람이 많아 여름에는 아예 돈을 주고 지킬 사람을 구할 정도"라고 말했다.

생산량이라도 많으면 일정 부분 보전이라도 되지만 소라도 마을에서 부탁을 받아 채취하는 것이 전부로 수협 계통 출하 같은 건 생각도 못하고 있다.

그나마 5월말부터 7월초까지 채취하는 '대합' 수입은 짝짤한 편이다. kg당 4만2000원의 고가지만 '선물용'으로 없어 못 팔 정도. 하지만 하루 온종일 작업을 해도 3kg남짓을 수확하면 다행일 만큼 작업이 힘들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바다에 대한 것은 다른 어촌계보다 관대한 편이다.

김 어촌계장은 "대합작업도 잠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는 종패 뿌려놓은 것을 일정 부분 걷어들이고 바다를 열어볼까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수입원'에 눈을 돌리다

'바다를 연다'는 말은 잠수들에게 자신들의 텃밭을 내어놓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하지만 물건이 갈수록 줄어들고 오히려 유지하는데 더 많은 경제 비용이 드는 상황에서 바다를 연다는 선택은 보다 현실적으로 들린다.

곽지어촌계는 노래방과 회의실 등을 갖춘 고급형 민박을 운영하고 있다. 원룸형 4실을 포함해 18실(92.4㎡ 14실), 250명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크다.

많이 알려지지 않아 겨울은 조금 을씨년스럽지만 여름이면 5월부터 예약이 밀려 빈방이 없을 정도다. 수확여행단들에게도 알음알음 소문이 나면서 바쁜 한철을 보냈다.

여기에 현재 진행중인 곽지해수욕장 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 민박 사업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봄·여름 장사로 지난해 순수익 1000만원을 올렸지만 아직은 가을·겨울 등 비수기 관리 대책이 없는 상태. 취재반이 찾아갔을 때도 운영비 등의 이유로 민박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김 어촌계장은 "잠녀 등 어촌계 내부의 의견을 수합해 결정할 일이지는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바다를 여는 것이 최적의 대안인 것 같다"며 "필요한 만큼 서로 공유를 하다보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물빛 고운 괄지 바다에 여름이면 발로 아금조개를 잡을 수 있고, 잠녀들이 직접 바다에서 채취한 해산물
물이 식탁에 오르는 진짜배기 어촌형 민박으로 승부수를 건다는 계획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김 어촌계장은 "종패를 뿌려 살아나는 바다가 있고, 그렇지 않은 바다도 있다"며 "바다 성격에 맞춰 바
다를 열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는 것이지 천편일률적인 정책으로는 바다를 끌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돌아오는 길, 바다는 겨울바람에 노래를 한다. 여름날의 향수에 젖은 목소리만은 아니다. 마른 모래가
루에 실려 끈적끈적하고 짹짹한 바다 맛이 난다. 내년 이곳 바다에는 사람 소리가 가득차 있기를.

<특별취재반=김형훈 문화체육팀장, 김대생 동영상·인터넷팀장, 고미 사회팀 차장, 해녀박물관>

'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제주시 매월읍 매월리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
(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